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재개관 기념



올해의 예술축제 2004

ARTS FESTIVAL
OF THE YEAR



무용분야 최우수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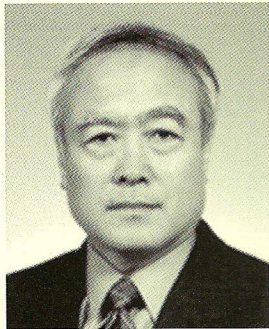
쏟나기 Born Again

2004년 12월 29일 (수) 오후 7시 30분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안무: 김윤규 / 연출: 김형희 / 출연: 김윤규 무용단

주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THE KOREAN CULTURE & ARTS FOUNDATION

주관: 올해의 예술상 운영위원회

후원: 국무총리복권위원회 문화관광부



올해의 예술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류가 지향하는 삶의 목적이 문화적 풍요인 이 시대에 인간의 행위에 창조적 충동·열정·폭격·희망·상상력 등을 부여하는 '기초예술'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초예술은 모든 예술활동의 근원을 이루는 큰 뿌리와도 같은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최근 문화산업계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도 우리나라 기초예술의 힘에 의존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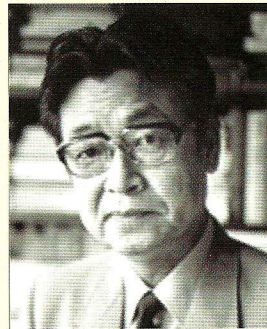
저희 문예진흥원은 이러한 기초예술의 가치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자 올해의 예술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한해 동안 만들어진 각종 예술작품 중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들만 엄선하여 보여드리는 이 축제에서 여러분은 우리 예술의 힘을 강하게 느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축제에 참가한 작품 외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놓치기 아까운 예술작품들이 참 많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축제의 성격상 그 작품들을 모두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예술작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올해의 예술축제는 특히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른 대체재원인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영국, 호주 등 많은 문화선진국들은 복권수익금을 문화예술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예술축제는 복권수익금이 기초예술을 통한 국민들의 문화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올해의 예술축제에 오신 국민 여러분! 우리 예술과 즐겁게 만나시고 많은 추억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예술인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창작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현 기 영**



문화의 힘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21세기

인간의 지고선(至高善)을 추구하는 문화예술은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축적되는 창작품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있어 최고의 부가가치입니다. 더욱이 가계소득 증가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예술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진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의 예술축제"는 우리 문화예술의 창작 기반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문화예술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리입니다. 예술 창작에 있어 '우수한' 작품을 고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 축제에 참여한 작품 외에도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훌륭한 작품들이 모두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러한 축제를 계기로 내년에는 더 많은 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국민 여러분들이 문화예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현기영 원장님을 비롯, 이번 행사의 준비를 위해 애쓰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4 올해의 예술상 운영위원장 **김 윤 식**

숫나기 Born Again

숫나기, '숫아서 드러나다' ...

닫힌 문 앞, 우리는 문 뒤를 보고 싶고
조심스레 문(門)을 두드린다.
누군가 열어줄 텐데 아무도 없다.

다시 삶으로 숫나기.

이 문을 넘어서야 한다.
그 다음의, 또 그 다음의... 문.

나 그리고 다른 나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내가 손을 내밀어 함께 길 가는데
그 길은 많이 걸어본 길...

타래실을 다 풀면 끝이 보이려만
다시 삶으로 숫나기.

실타래 푸는 물레는 밤새워 굵이굽이 돌아간다.



Program

- 두 번째 침묵
- 솟나기

작품 해설

알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알에 갇혀 하루하루 세상 밖으로 솟나기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
알처럼 깨뜨려야 할 상징인 여러 문과 거듭되는 들락거림.
들락거림의 관계들에서 강압과 일그러짐의 일상이 물레처럼 반복됩니다.
이 일상을 넘으면, 저 문 너머에 살다운 삶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 그리고 진실을 기약하는 문.

하지만 거기엔 낙원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덧칠해졌는지 모릅니다.
이것만 넘으면, 이 문만 지나면... 그 다음의 문, 그리고 문, 문, 문...
그렇게 우리는 문전에서 서성입니다.

세상의 물레를 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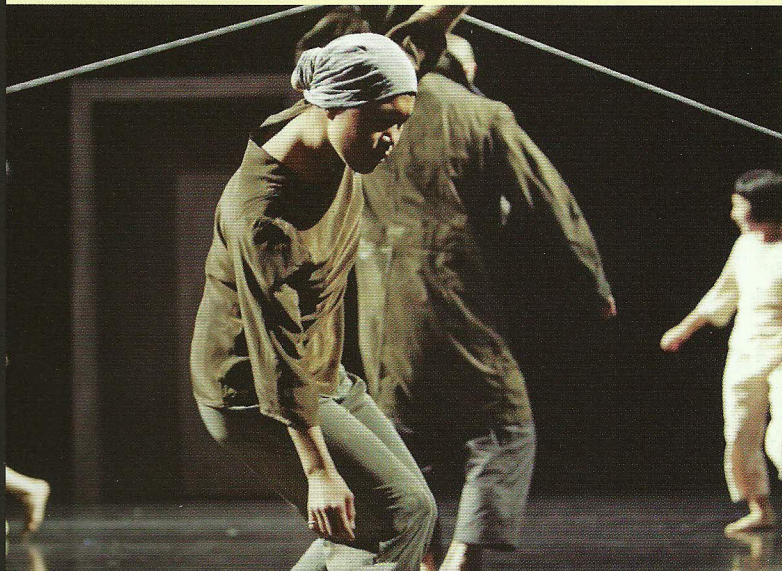
커다란 문들이 가로막는 광장에 아이만 남겨집니다.
정결한 영혼, 이 아이를 뒤쫓는 갖은 소리가 아이를 덮칩니다.
'오른쪽' '왼쪽' '웃어' '울어' ... 감정마저 강요됩니다.
아픔, 그리움, 눈물, 미움, 분노의 소리 소리가
사랑으로 피어나기를 꾀전을 맴돕니다.

우리는 물레에서 뽑은 한 가락 실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물레가락에 걸어봅니다.
한없이, 구구절절 돌아가는 물레...
간디의 물레, 어머니의 물레, 그리고 폭압과 사랑의 진통입니다.
돌아가는 물레가락의 타래실인 양 노년의 발길은 되풀이됩니다.
타래실을 가로지르며 밀고 밀는 노년의 발길.
깊은 주름 위에 흥타령도 잠시... 잦아드는 황혼이 갈 길을 재촉합니다.

이제 물레를 멈춥니다.

자리 깔아 몸 하나 누일 작은 공간에서 만나는 아이의 영동한 이야기...
선악과의 저주로 땅바닥을 기어대는 숙명, 혹시 그 뱀이 승천하는 날을 상상해 보셨던가요?
아이의 정결한 속삭임에 모두들 놀라고 몸짓으로, 춤으로, 신명으로 빠져듭니다.
길 따라 행렬하는 우리에게 쥐어진 실타래.
물레는 돌고 돌아갑니다.
알 속에 언제나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침묵

입을 열어 다툼이 되느니

차라리 입을 닫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작은 입무와 신상에 일어나는

혹독한 곤경에 소비되는 내면적 힘을 축적하는 것은 바로 침묵 속에서입니다.

그 침묵은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침묵은 결국은 서로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며, 성숙된 인간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침묵은 계속되어야 할 오늘의 침묵입니다.

작품해설

말하지 않는 것, 그것만을 침묵이라 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소리가기도 하고, 때론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 오늘의 시련을 이겨내려는 몸짓이 곧 침묵이며,

하고픈 말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함으로 멈춰서는 것 또한 침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향해 베풀어지는 예감과 통찰력은 침묵의 초시간적인 성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침묵은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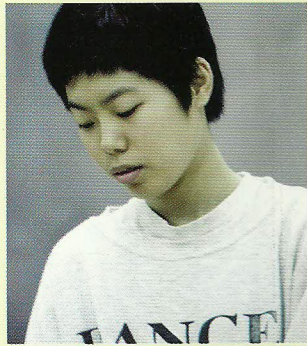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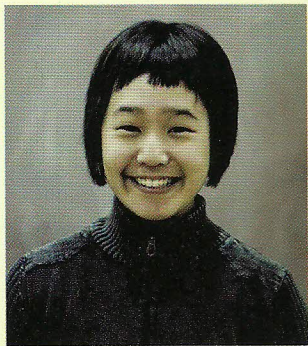
그럼으로써 끊어진 관계는 회복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오늘 당신과 나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결국 침묵은 일상의 소리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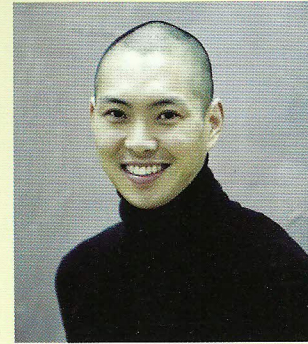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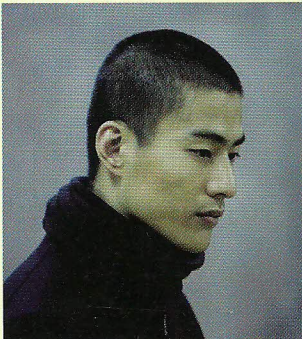
또한 강한 위력을 지닌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것이 축적되고, 폭발하듯 몸으로 지르는 조용한 함성, 그것이 오늘의 두 번째 침묵입니다.



왼쪽사진 시계방향으로
권예진, 김민선, 백경선, 제나경자
라, 한중철, 박현석, 김정웅

가운데 사진
김윤규



〈제작진〉

음악/ 이시준, 박성선, 조명/ 김철희, 무대/ 이창원, 의상/ 이진희, 사진/ 최병재, 영상/ 영상작업공간 TRU

아시아적 감성과 '논리의 시각화' - 김윤규의 솟나기

오늘의 우리 춤사회에서 김윤규의 존재는 매우 각별하다. 김윤규는 부산출신으로 20대를 민족과 현실문제에 저당잡혀 각(角)을 세우고 살아왔다. 춤을 자기신념의 실현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인식하고는 '거리의 시대'를 마감했다. 그후 트러스트무용단을 결성, 꾸준히 활동해 오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 현대춤계에 떠오르는 '무서운 아이'로 부상했다. 그후 지금까지 김윤규는 여러 개의 작품을 안무했고, 거의 모두 수준작이었다.

김윤규 안무의 「솟나기」는 치열한 작가정신의 소산으로 읽힌다. 이 작품은 결코 쉽게 탄생된 것이 아니다. 김윤규의 춤수련 방식은 참으로 진지하고 치열하다. 대학시절부터 그는 전공인 현대춤 영역에 머물지 않고, 탈춤을 비롯 경극, 태극권, 몽골춤, 요가 등 동양의 다양한 춤들을 몸소 체험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춤메소드를 찾기위해 끈질기게 노력해 왔다. 현대춤 전공자로서는 드물게 김윤규는 일찍부터 아시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몽골, 중국, 중앙아시아를 오가며 공연활동과 춤워크샵 진행하기도 했다. 2001년도에는 몽골의 말춤 잘름하르를 재현하는 것을 아리랑 TV가 위성방송으로 띄웠는데, 한국 방송을 선호하는 많은 몽골사람들이 이를 시청했다고 한다. 그후 몽골에 간 김윤규는 '저명한 인사'로 바뀌어 있었다.

안무자가 정의하고 있는 '솟나기'의 사전적 개념은 "솟나서 걸으로 드러나다"로 압축된다. 작품 제목의 풀이답게 김윤규는 작품 「솟나기」를 통해 확실히 '솟나서' 걸으로 드러났다. 이 작품의 관람 포인트는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문(門)과 물레다. 문은 앞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세상 밖을 꿈꾸는 사람, 그 사람이 쉽없이 들고나며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공간인 것이다. 특히 문과 문 사이를 통과하는 지점에서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치밀하게 계산된 시간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된다. 무대 상수에 설치된 물레는 한 곳에 고정된채 작품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작동된다. 이 작품은 무대 공간활용에서도 독특한 일면을 보여준다. 후반부 「솟나기」의 무대는 무대 속의 '놀이판'으로 인식된다.

「솟나기」는 명쾌하면서도 심오한 주제성을 담고 있다. 또한 상호 교감속에서 이루어지는 무용수들의 몰입과 집중감은 섬뜩함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안무자 김윤규는 그동안 현대춤 뿐만 아니라 동양의 다양한 춤들을 체득해 왔는데, 이번 「솟나기」에 녹아나 있는 독창적 움직임은 그러한 결실의 소산이다. 개성있는 춤메소드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공연미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솟나기」는 더욱 의미롭다. 이 작품을 통해 김윤규는 아시아적 감성과 '논리의 시각화'를 통해 치열한 작가정신을 구현했다. 몸의 상상력과 감성의 시대 얇은 감각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삶과 예술에 대한 진지한 사유와 통찰, 그리고 탄탄한 자생력을 바탕으로 작가적 진정성을 모색해가는 김윤규의 작가적 태도에서 우리시대 새로운 안무가의 상(像)을 발견하게 된다.

무용평론가 성 기 숙